# 한글 교육과 훈민정음 체계 및 제자원리

육 효 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 1.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와 현대한국어의 자음 체계

### 1.1.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全清	次清	不清不濁	全濁
牙音	٦	7	Ò	77
舌音	ㄷ	E	L	ττ
唇音	日	<u>N</u>	П	用用
齒音	太,入	六		双,从
喉音	ō	ठं	٥	ठंठें
半舌音			린	
半齒音			Δ	

## 1.2.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원리

五音	基本字	象形原理	加劃字	異體字
牙音	7	象舌根閉喉之形	7	Ò
舌音	L	象舌附上腭之形	СE	근
唇音	П	象口形	日豆	
盎音	入	象齒形	天 夫	Δ
喉音	Ó	象喉形	o ㅎ	

# 1.3. 현대한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조음	·방법		(Bilabial)	(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폐쇄음/	평음(neutral)	∃[p , b]	⊏[t , d]		¬[k , g]	
	파열음	격음(aspirated)	亚[p <sup>h</sup> ]	E[t <sup>h</sup> ]		$\exists [k^h]$	
	(Stop/	경음(tensed)	<sup>нн</sup> [р']	ㄸ[t']		¬¬[k']	
무	Plosive)						
   성	파찰음	평음(neutral)		*ㅈ[ʦ, dz]	ㅈ[tc , dz]		
(Affricate)	격음(aspirated)		중세국어	츠[tcʰ]			
	경음(tensed)			巫[tc']			
	마찰음	평음(neutral)		스[s]			
		격음(aspirated)					호[h]
(Frica	(Fricative)	경음(tensed)		ㅆ[s']			
유 비음(		비음(Nasal)	□[m]	ㄴ[n]		○[ŋ]	
ㅠ     성	유음	설측음(Lateral)		ㄹ[1 ]			
음	(Liquid)	탄설음(Flapped)		리[r ]			
E (Liqu	(Liquiu)	전동음(Rolled)		ㄹ[r ]			

# 2. 훈민정음의 중성 체계와 현대한국어의 모음 체계

# 2.1. 훈민정음의 중성 체계

# 2.1.1. 기본자: 天 地 人 三才를 본떠 만듦

	象形	舌	殸
•	象平天	舌縮	聲深
_	象平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	象平人	舌不縮	聲淺

### 2.1.2. 합성자: 초출자, 재출자, 합용자

	특징	보기	
初出字	' ㆍ '가 하나 쓰임	ㅗ, ㅏ, ㅜ, ㅓ	
再出字	' · '가 둘 쓰임	业, ⊧, π, ╡	
	同出合用字	나, 뱌, ㄷ, ㄸ	
合用字	' ] '合用 一字 中聲	·1, -1, -1, -1, -11, -11, -11, -11	
	' ] '合用 二字 中聲	ᅫ, ᅰ, 庯, 뱨	

#### 2.1.3. 이중모음 체계

(1) 상향 이중모음: <sup>교</sup>, <sup>‡</sup>, <sup>π</sup>, <sup>‡</sup> / <sup>과</sup>, <sup>ন</sup>, <sup>μ</sup>, <sup>μ</sup>

(2) 하향 이중모음: 니, 니, ㅐ, ㅓ, ㅔ

#### 2.1.4. 단모음 체계의 변천

(1) 중세한국어의 7단모음 체계

(2) 근대한국어의 8단모음 체계

(3) 현대한국어의 10단모음 체계

### 2.2. 현대한국어의 모음 체계

#### 2.2.1.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혀의 높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高母音)	] [i]	귀[y]	-[i]	⊤[u]
중모음(中母音)	귀[e]	비[Ø]	-] [ə]	그[o]
저모음(低母音)	H [e]		} [a]	

### 2.2.2. 이중모음 체계

#### (1) 반모음(semi-vowel)

구강내의 어느 부위가 맞닿을 정도로 좁혀진 틈으로 산출되는 지속음 [j]와 [w]이다. 반모음 [j]는 /이/ 모음의 조음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이고, 반모음 [w]는 /우/ 모음의 조음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움직이면서 내는 소리.

이들 반모음들은 조음상에서는 모음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모음이 앞이나 뒤에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자음과 비슷하다. 미세한 개구도 차이로 모음과 자음의 사이에서 발음되므로 홀로 독립할 수 없는 과도음(過渡音, glide)이며, 과도음이기 때문에 단모음과 합성하여 이중모음을 생성하는데 과도적 요소로 잠재할 뿐이다. 이들에 의해 생성되는 이중모음들은 말 그대로 자음적인 특성보다는 모음적인 특성을 더 많이 지녀 이들을 한 단위로 파악한다.

####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을 덧붙여야만 만들어진다. 이 때 반모음과 결합하느냐, 또 그 반모음이 어느 쪽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계열로 나눌 수 있다.!)

① j- 계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 / ㅑ//jal / ㅕ//jəl / ㅛ//jol / ㅠ//jul / ㅒ//jel / ㅖ//jel

<sup>1)</sup>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단모음은 음운사적 변천에 따라 그 수효가 바뀌었다. 중세한국어 이중모음(중모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세화(1976)와 육효창(1989) 참조

- ② w-계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 /나/[wa] /거/[wa] /내/[we] /네/[we]
- ③ j 계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 기/[ii]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③ -j 계 이중모음(하향 이중모음) /-l/[ij] 다. 이 이중모음은 나머지 이중모음이 상향 이중모음임에 비해 하향 이중모음으로서 [ij]에 가까운 발음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 어서인지 현재 그 발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희다, 환희, 무늬'등 표기에서는 자음 다음에서도 /-l/가 쓰이고 있으나, 이 환경에서의 /-l/는 / l/로 실현된다. '의사, 의자, 의욕, 의정부'처럼 자음이 앞에 놓이지 않을 때에만, 그것도 대부분 제1음절에 놓일 때에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내의, 강의, 민주주의'처럼 제2음절 이하에서도 제 음가대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때에는 / l/로 발음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서울의 옛 이름, 천사의 날개'와 같은 속격조사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 l/로 발음하다.

## 3. 훈민정음의 종성 체계와 종성표기법, 기타 규정

### 3.1. 훈민정음의 종성 체계 및 제자원리

"終聲復用初聲" 규정에 대한 해석

### 3.2. 종성표기법

- (1) 중세한국어의 8종성법
- (2) 근대한국어의 7종성법
- (3) 현대한국어 음절의 끝소리규칙(7개)과 형태음소적 표기법

#### 3.3. 기타 규정

- (1) 연서법 (連書法, 이어쓰기)
- (2) 병서법 (並書法, 갈바쓰기)
- (3) 부서법 (附書法, 붙여쓰기)
- (4) 성음법 (成音法, 凡字必合而成音)
- (5) 사성점 (四聲點, 去聲/上聲/平聲/入聲)

#### 참고 문헌

육효창(1989),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연구사적 고찰」, 동악어문논집 제24집, 동악어문학회.

육효창(1997),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효창(2003), 「한국어 음운음성 교육」, 동국어문학 제15집,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육효창(2006a),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육효창(2006b),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연구논문집 제1집.

육효창(2007),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음운 교육상의 과제」,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연구논문집 제2집.

육효창(2009), 「한글 교육과 훈민정음」, 제3회 뉴질랜드 한인학교 교사연수, 뉴질랜드 한인학교협의회.

육효창(2010), 「한국어의 문법과 어문규범」, 제6회 유럽 한글학교 교사세미나, 유럽 한글학교협의회.

육효창(2010),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훈민정음」, 태국 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 태국 한글학교협의회.

이기문 외(2001), 『증보판 국어음운론』, 학연사.

이상직(2000),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음운현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과 실제』(남기심 외 공저),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출판부.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최세화(1976), 『15세기 국어의 중모음연구』, 아세아문화사.

최세화(1987), 『국어학논고』, 동국대출판부.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